

## 제34회 임시회 목포시시의회본회의회의록(제 1 차)

1. 일 자 : 1955(4288)년 3월 9일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의성립 :

1. 출석의원 : 16명

2. 불참의원 : 5명

4. 개의선언 : 의장

(오전 11시)

5. 보고사항 :

1. 제33회 회의록 낭독

2. 해무청 추진위원회 회의록 보고

3. 석천호 조사위원회 결과 보고

4. 사료배급 조사위원회 결과 보고

5. 대지료 진성서 조사위원회 경과 보고

6. 노무임금 지불에 대한 결의문 발송 보고

7. 신성모(해사위원회 위원장)의 감사문 발송 보고의 건

6. 부의안건 :

1. 지방해무청(가칭) 설치의 건

◇ 부의장

- 개의선언에 이어 전차 회의록 제1차, 제2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음

◇ 박찬대 서기

- 전차 회의록 낭독

◇ 부의장

- 회의록 일부 수정하여 통과하겠음  
(회의록 참조)

◇ 정응균 의원

- 해수욕장내의 조선공사 방치와 사리운반 하여간 사실에 대한 답변 여  
하?

◇ 건설과장

- 철거시킴과 동시 사리 운반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겠음

◇ 진복춘 의원

- 전차 회의록 일부 수정을 요구  
(속기록 참조)

◇ 김삼성 의원

- 시정 감사와 교육청 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음

◇ 부의장

- 해무청 유치 운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음

◇ 김영완 의원

-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였음

◇ 김창현 의원

- 21명의 의원은 13만 시민을 위하여 일치단결한 것을 역설  
(속기록 참조)

◇ 진복춘 의원

- 해무청 유치에 대하여 추진위원을 초청하여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자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음

(속기록 참조)

◇ 김삼성 의원

- 13만 시민을 위하여 일어난 우리 의원이 이러한 중대한 운동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다.

◇ 이재홍 의원

- 해무청 관계의 질의에 있어서는 토론을 중지하고 부의 안건에서 토의하자

◇ 정응균 의원

- 본회 진행 절차로써 토론을 중지할 것을 발언

◇ 부의장

- 토론하기 전에 해사국장의 참고 말씀을 듣기로 하자

◇ 이복주 의원

- 회의 순서대로 진행할 것을 발언

◇ 부의장

- 석천호 조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음

◇ 김영완 의원

- 구입에 대한 중간 보고가 있었음

◇ 부의장

- 조사위원회의 결과 보고에 이의 없으면 통과하겠음

◇ 정응균 의원

- 서류상으로 조사불능이니 남해지방 현지로 출장하여 그 결과를 본 의회에 보고할 것을 동의

◇ 진복춘 의원

- 행정부로서 잘못 했다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잘 하여 주도록 각성을 촉구한 것임

◇ 부의장

- 현지 조사 여부는 기타 사항에서 결정하고 사료문제에 대해서 말을 잊기를 바람

◇ 김삼성 의원

- 보고서에 의하여 낭독

◇ 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대지료 진정 보고를 하겠음

◇ 정응균 의원

- 조사 보고서 낭독

◇ 부의장

- 노무임금 조속 지불에 대한 진정서와 해무청 유치 운동에 극력 원조하여 주신 신성모씨에게 감사문 발송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

◇ 진복춘 의원

- 목포 및 도서출신 민의원에게 감사문 발송할 것을 동의 해무청 추진 운동에 대하여 각 의원의 논의가 있었음 (속기록 참조)

◇ 손백수 의원

- 해무청 유치운동에 재무부원으로 되어 있는데 선전부로 돌려준 것을 요망하며, 도서관 설치 운동자금으로써 3일간의 변상금을 거출하는데 동의

◇ 김길환 의원

- 해무청 설치로 수정할 것을 동의

전원 찬동 가결

◇ 이재홍 의원

- 정중섭 의원에게 협조하여 달라는 전보를 발송할 것을 긴급 동의 (속기록 참조)

◇ 이복주 의원

- 시급하므로 시의회를 중지하고 해무청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개의

◇ 진복춘 의원

- 해무청 설치에 대하여 중앙의 공기를 해사국장으로부터 듣기로 긴급 동의

◇ 부의장

- 표결하겠음  
가 11, 가결

※ 해사국장, 상공회의소장, 번영회장의 말씀이 있었음

7. 휴회선언 : 부의장 (오후 2시)

8. 속회선언 : 부의장 (오후 2시 30분)

◇ 이재홍 의원

- 석춘호 조사에 있어서 현지 출장 중지한 것을 개의

◇ 정응균 의원

- 조사반으로서 김영완 의원을 보낼 것을 재 개의

◇ 이복주 의원

- 21명 의원 전부가 조사위원이 되어 조사하여 다음 회의에 개별적 보고를 하도록 번안 동의

(7청까지 있었음)

◇ 부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 12명 가 10  
가결

◇ 손백수 의원

- 일체의 잔재성을 가지고 있는 서책이 태반이므로 우리 도서관에 의원  
전부가 300환씩 거출하여 책을 구입할 것에 동의

◇ 정응균 의원

- 자기 소유의 서적을 성심대로 도서관에 기증할 것을 개의  
전원 찬동 가결

◇ 김자홍 의원

- 회의를 종결하고 재명일 11일 속회할 것을 동의

◇ 부의장

- 표결하겠음  
가 8 가결

9. 산회선언 : 부의장

(오후 5시 10분)

10. 폐 회 식 : 생략(식순)

◇ 부의장

- 회의록 서명위원에 의원을 지명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이 서명 날인함

1955(4288)년 3월 10일

부의장 : 이 소 규

의원 : 김 자 홍

의원 : 명 남 철

작성자 서기 : 홍 남 식

## 제34회 임시회목포시의회본회의속기록(제 1 차)

(오 전)

### ◇ 부의장

- 의장님이 몸이 불편하여 부의장 제가 가름해서 오늘의 사회를 맡아보겠습니다. 전에 안보이던 우리 의회에 속기사가 채용되어 출석 하였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건데 왕왕 발언 내용에 있어서 발언하신 의원의 의사에 배지된 기록이 나타나기에 곤란한 점이 많았는데 오늘부터는 발언하실 의원은 반드시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석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종전과 같이 어느 의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게 그 자리에서 a라을 한다면 도저히 혼돈되어서 속기사가 속기를 못하게 되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의회석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의회는 그 전 사무감사의 후인 수개월간 행정부에서 의회가 없어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다가 그후 2일간 회합 하였으나 역시 원만한 할말을 다 못하고 들을 말을 다 못하신 5, 6명의 의원이 다시 의회를 개최해 달라는 용청이 있어서 오늘 의회가 개최 되었으니 여러분께서는 진실과 성의로서 감정에 사로 잡히지 마시고, 건설적인 질의와 건설적인 발언을 발언석에서 발언하여 주시기를 사회자로서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33회 회의록을 낭독하겠습니다.

### ◇ 간사

- 제33회 회의록을 낭독하겠습니다.

순서로 제1차 제2차를 계속해서 낭독하겠습니다.

(제33회 회의록 낭독)

### ◇ 이복주 의원

- 부의장! 회의록을 통과시키고 낭독하십시오

### ◇ 부의장

- 방금까지 낭독한 3월 3일의 의회 대 행정부 질의응답의 회의록에 이의 있습니까?

(장내 소란)

◇ 박찬규 의원

- 그 당시(제33회 회의시)에 방청하고 여러분에게 조용히 하라는 것 이였습니다.

◇ 부의장

- 당시의 사회자로서 방청하신 여러분에게 조용히 하라는 것 이였지 의원 여러분에게 조용히 하라는 것이 아니였습니다.

그 점을 수정하겠습니다.

◇ 김삼성 의원

- 안전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을 것은 물론입니다. 의회가 개최 시 요청에 의해서 답변도 있었을 것이며, 질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록에는 질문한 것은 전혀 나오지 않고 답변만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 부의장

- 오늘 그래서 속기사를 초청 하였습니다.

아시다 싶이 종전과 같은 식으로 발언을 한다면 속기석에서 대단히 곤란할 것이며, 정신을 차릴수가 없을 것입니다.

종전에는 사무국에서 총괄적으로 이해를 하셔서 각 의원의 발언 요지만을 기입하다 싶이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속기사가 있으니 순서있게 발언하여 주십시오.

◇ 김삼성 의원

-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시민의 복리를 위하고 또한 동운영에도 어떻게 하여 복리를 도모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시 의원들이 지방을 시찰할 때 행정부의 운영, 시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시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도 없이 유람격으로 된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시의회가 4개월만에 개최된 것은 우리 몇 의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된 것입니다.

◇ 김자홍 의원

- 전 회의에서 말씀이 있던 도로의 아스팔트를 깐지 3개월도 못되어 파손된다는 것은 기술 부족이라고 생각 합니다.

즉 아스팔트를 먼지가 끼어있는 위에다 그대로 깐것이 원인이 되어 쉽게 파손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시장님은 아스팔트 공사하는데 구경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마는 근본적으로 아스팔트 공사를 할 때에는 먼지를 쓸고 불고 하여야 많이 오래 갈 수 있는 것이지 먼지 위에다 그대로 아스팔트를 깐다면 쉽게 파손되기가 당연할 것입니다.

◇ 부의장

- 회의록에 빠진 항목은 넣어 주십시오.  
회의록을 넘기겠습니다.

◇ 김자홍 의원

- 배급 사건에 대하여 시장님이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과거에 박재우 시장은 회계계장의 부정사건으로 책임을 지고 떠났는데 지금의 현 에게 미안의 말도 하지 않았는가?

◇ 손백수 의원

- 동직원의 배급문제 질의에서 그 내용의 설명을 들으려 하였는데 그 당시 시장님이 서울 가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듣지 못하였는데 시장님이 와서 동직원 배급문제에 그런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시고 금후에는 그런 무리가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또한 동행정을 동직원에게 공과금 납부와 결부시켜 식량배급을 주었다 하여 시장이 서울 출장 갔다 와서 하부 직원이 잘못하였기 때문에 즉시 중지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찌 되었습니까?

◇ 이복주 의원

- 회의록에 나타나 가지고 내용으로서는 중요한 국가재정 관계를 본다면 시청 산업과에서 460가마의 맥강을 어떻게 처분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은 300가마는 동양공장에 특배하고 160가마는 맥강에 관련된 과거의 경비를 청산하기 위하여 처분하였다는 이야기가 있고 양정계와 축산계에서는 맥강 차별 취급에 관해서는 한계를 모르고 있는데 산업과장 역시 한계를 자기자신도 답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 김삼성 의원

- 이번에 의회 서기가 세로 갈려서 그런 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는 종전의 오기가 기록하면서 많이 누락되어 있었으나 본 의원이 잘 이해한 관계로서 누락된 점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편 북교동에서는 63, 970환의 1953(4286)년도 동정세를 받아 가지고 동직원의 식량배급 대금 37, 080환을 공제하고 나머지에서 자료대, 문구대를 공제하고 나머지 8, 700환을 동의로 돌려 보내준다.

이러한 말을 동장회의 석상에서 시장과 총무과장이 공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동직원의 식량배급에 있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며, 1953((4286)년도 식량배급이 아직 지급되지 안되었다. 또 2년간 동장 봉급이 전연 지급 안되었다.

그래서 행정 당국에서 봉급 지불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일체의 기록이 안되고 답변에 대하여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장의 이에 대한 답변을 그 당시에 총무과장이 하였는데 그럼 총무과장님 지급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 3, 600환 이라는 동정세를 시에 바쳤다는 그 문제는 동에서 생각한 점하고 시에서 생각한 점하고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하며, 동 자체가 생각하기에는 3,600환에서 식량대를 제하고 동경비를 받은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동이 바단 북교동 뿐만 아니라 호남동 기타에서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3, 600환이 들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1953(4286)년도 동정세가 지금 북교동에 징수되었지만 미납이 남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 동에 동정세 미납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에서는 징수된 동정세를 그 동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1953(4286)년도 동정세 청산을 정확히 하고자 전체적으로 미납을 각 동에서 조사케 하여 통계수자를 내본 결과 41만여환이 징수 불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동에서 강력히 추진해서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1953(4286)년도 부채를 정리하고 거기에 부족액은 시경비에서 이용하고 동정세를 받아가지고 충당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 부의장

- 이상의 의의가 없으시면 3월 3일 회의록에 대한 질의응답은 이로서 종을 짓겠습니다.

(이의 없음)

그러면 간사 3월 4일의 회의록 낭독하여 주십시오.

#### ◇ 간사

- 회의록 낭독하였음

#### ◇ 정응균 의원

- 해수욕장에 모래를 운반하는 사실도 있으며, 해수욕장 개설 당시에는 조선공사를 철거시키기로 하였는데 개설 이래 1년이 되어도 조선공사를 발차하여둔 의도는 어디있는가?

또한 해수욕장내에 조선공사가 있어도 지장이 없는가?

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회의록에는 전연 빠져 있습니다.

#### ◇ 부의장

-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 철거하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 진복춘 의원

- 부랴크가 부러져서 용접을 하여 쓸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똑똑히 낭독하여 주십시오.

◇ 부의장

- 부분적으로 회의록을 낭독하도록 합시다.

◇ 진복춘 의원

- 부랴크가 부러져서 용접을 해가지고 해사국에 검사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경비가 필요하다는 것의 운운은 삭제하여 주십시오.

◇ 부의장

- 그러면 삭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이 회의록은 이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 김삼성 의원

- 행정부에 대하여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3월 3일 4일 2일간에 걸쳐 여러가지로 우리 의원들이 행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여 미안합니다 마는 우리 의회가 작년 12월 24일 시정감사 때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12월 24일의 시정감사 보고에 대하여 조금도 간섭치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시정감사와 교육청 감사를 계속 하였는데 우리 의회에는 사무국에서나 시행정당국이 이 사무감사 결과에 강력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교육청 책임자를 출석케 하여 기기에 대한 답변을 듣기를 바랍니다.

◇ 부의장

- 이 점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 시장

- 사무감사 결과에 답변하려 하였으나 당시에 질의가 대단히 많아서 그 기회에 어느 정도 답변하였으나 오늘 답변하겠습니다.

◇ 부의장

- 교육청과 동시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 김삼성 의원

- 답변하기 전에 알아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무감사 보고서류를 잠시 반환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부의장

- 그러면 해무청 유치 운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까.

◇ 김영완 의원

- 전반 제33회 의회에서 추진위원회 문제가 논의되고 6인위원회를 구성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월 6일 12시 20분 열차로 상경하여 활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보고에 의하여 하였음)

◇ 부의장

- 해무청 유치추진 위원회 문제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김창현 의원

- 지난 3월 3, 4일 2일간 연일 여러 의원의 회의에 불초 말석에 있는 본 의원이 말씀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소합니다 마는 오늘 해무청 유치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 본 회의에 참석하면서 까지 들은바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해무청 이것은 대한민국으로서 역사상으로 발전하는 것이요, 또 목포로 보아서 13만 시민 뿐만 아니라 도서 근방이 행이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 의회 뿐만 아니라 13만 시민의 갈망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의 말은 약하고 오늘 아침에 들은 바 말씀은 우리 의원중에서 해무청 유치 운동을 부결하였다.

이것이 참으로 들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본 의원의 가슴이 뭉클해 졌습니다.

의원이 특히 불결의 의원으로서 일을 한 것이라고 말하고 의회만 있으면 시장 불신임 하는데 강력히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 21명은 어디까지 목포시민을 위하여 싸우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이러한 말이 유포되는 것은 오직 무능한 사람을 모략하고 중상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오늘 아침에 20분간이나 드렸는데 말석에 한 한사람 이나마 시장 불신임을 재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3만 시민을 위한 우리들의 한 사람, 두 사람 편파적 또는 일방적으로 되어 21명의 부분적으로 일을 g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어디까지나 제 말씀은 일치단결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들은바 어제 들은바는 결국 우리시 의원중에는 시민을 위하여 무능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 ◇ 진복춘 의원

- 목포에 해무청이 유치한다는 내용 설명에 대하여서는 제33회 회의시 여러분의 심의한바 이고 또 방금 김창현의원이 말씀한 바와여히 목포해무청 유치는 대단히 시급한 문제인 만큼 조속히 하여야 함 서입니다.

제가 몇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자유신문 지상에 인천, 부산은 해무청 법규에 의해서 예정이 확고한 것이라고 나고, 여수, 군산은 지금 법규안 내사중이라고는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목포시민이 볼 때 가슴이 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무청 유치추진 위원 6명의 보고 결과를 들었으니 오늘 시의회가 끝나는대로 아까 추진위원들은 이 자리에 초청하여 즉시 이것을 추진하기를

여러분에게 동의합니다.

◇ 부의장

- 의원이 어떠한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것이 김창현의원 만을 지적한 일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곡해는 깨끗이 풀어 주십시오.

◇ 김삼성 의원

- 오늘 대단히 즐겁고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투쟁을 하는데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쁩니다. 지난 12월 24일에 의회를 하고 3, 4개월 회의를 안했다가 이제 회의를 하기에 투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의원은 목포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4년동안 목포의 발전을 위하여 일을 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나 저희들은 물론 의론하는 입장에서 목포시를 위하여 일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정신, 그런 중요한 안건으로 앞에 가로놓은 우리 의회가 10일이나 1주일의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 의원에게는 한마디 말씀도 없이 그중대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 이재홍 의원

- 부의장 지금 보고사항이 질의가 된다면 해무청 관계를 그대로 질의사항에 해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해무청 문제가 다음 부의 안건에서 토의할 것 같으면 일단 토의 중지하고 다음 안건을 토의합시다.

◇ 부의장

- 김영완의원의 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정응균 의원

-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금 부의안건에 나타나고 있는 해무청 관계 때문에 오늘 의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그 보고사항이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6인 위원회 회의 사항을 듣고 당연히 질의의 안건에서 결정하여야 될 것으로써 지금 거기에 대한 모든 토의는 중

지하고 해무청 유치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안건에서 해무청 유치에 관한 모든 토의를 하고 다음 복 안건으로 들어간 것이 본 회의의 진행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의장

- 해무청 유치 부의안건을 토의하기 전에 해사국장님이 방청석에 계시니 중앙에 출장중 중앙에 여러가지 공기를 잘 아시고 오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해무청 유치 관한 참고 말씀과 중앙에 공기, 여수의 공기, 여기에 대해서 지식의 말씀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찬성하는 이 있음)

◇ 이복주 의원

- 향간의 오해를 좀더 토의하여 가지고 해사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해무청에 관해서는 일체 말씀을 하지 말고 지금 회의 순서대로 합시다.

◇ 진복춘 의원

- 해사국장님의 해무청 유치에 관한 의견을 듣자는데 찬성합니다.

◇ 이복주 의원

- 서울 갔다오신 그런 이야기 보다는도 의회의 의결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6인위원회에 일임하고 있으나 이 해무청 유치 관계 때문에 시의원이 소환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으니 좀 말을 해야 되겠어요.

◇ 부의장

- 그러면 석천호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 김영완 의원

- 석천호 구입 현지 조사 중간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서 낭독함)

◇ 부의장

- 3인 조사위원의 현장 조사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의 없으면 통과하겠습니다.

◇ 정응균 의원

- 석천호 조사위원 한 사람으로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끝마칠 수 없을 것입니다.  
석천호 구입 당시에 출장하였던 의원의 말씀은 이 문제를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명백히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느낀바입니다.  
호지부지한 목포시청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보고한다 하였던들 그 설명은 다 보고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명하기 위하여 현지 출장조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본 회의에서 이것을 어디까지 완전히 해명하기 위하여서는 현지 남해까지 가서 판 사람을 대조하고 그 당시 소개한 부에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본 회의에서 이것을 완전히 결말을 결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 진복춘 의원

- 조사위원회 보고를 받았으면 방금 의원의 말씀이 옳습니다.  
본 의원은 그 배를 구입하는데 흑막이 있다는 것 보다도 주무관계에게 일을 잘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어제 그 석천호에 갈려고 한 것인데 우천 관계로 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부정이 있다면 흑막을 명백히 한들 별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십사 하고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 이복주 의원

- 석천호 관계에 대해서 토의한 그날 의회에 참석치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 부정이 없으면 없다고 확실한 결정을 그대로 그 자체가 확정한다면 정확하다고 그대로 넘겨 가고 끝까지 부정이 내포하여 있다면 현지까지 조사를 간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전 12시 25분 의원 입당

◇ 부의장

- 조사위원회에 해무청 유치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면 오후에 질의안건과 기타 사항에서 토론합니다.

◇ 명남철 의원

- 지금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있어서 현지 조사를 가네, 어떠네 하는데 조사할 일은 꼭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석촌호 구입당시 근 1개월간을 이리저리 돌아 다녔으나 겨우 그런 배를 구입되게 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지에 무슨 흑막이 있는가 하여 현지 조사를 가는데 있어서 시재정을 사용하여야 할 것인데 시로서는 하등 수입된 관련이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현지에 조사를 간다고 하면 제가 사제를 내어사라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거기에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철두철미한 조사를 하여 보고하여 주십시오.

◇ 부의장

- 현지 조사여부는 기타 사항에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료문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십시오.

◇ 김삼성 의원

- 사료 관계 조사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에게 수치 스럽기 짝이 없는 사료 문제입니다.

(보고서에 의하여 낭독하였음)

◇ 부의장

- 방금 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강대진 자료 관계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정응균 의원

- 북교 3구 31명의 전정서의 관계는 전반 의회에서 조사위원 4명에게 일임 하였는데 그러한 사람으로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조사에 착수하여 지정서를 즉시 법원에 내기로 되었는데 시일○ 리 없어서 아직 그 서류가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나는데로 곧 제출하겠습니다.

(보고에 의하여 낭독하였음)

◇ 부의장

- 근로동원 임금 조속한 지불에 대한 사회부장관에게 보내는 내용의 진정서 낭독은 생략하고 그대로 통과합니다.

(찬성하는 이 있음)

그 다음 해무청 유치 운동에 지극히 협조하여 주시는 신성모씨에게 감사문 즉 해무청 유치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협조하여 주십사 하는 감사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낭독해 드릴까요?

그대로 통과 시킬까요?

(전원 그대로 통과 시킨데 찬성)

◇ 진복춘 의원

- 우리 목포시 출신 민의원 의원고가 도서 출신들에게도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는 감사문과 이분들에게 계속적으로 해무청의 유치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라는 격려문과 동시 감사문을 보낼것을 동의 합니다.

◇ 부의장

- 그러면 해남, 무안 갑을구, 진도, 완도 등 도서출신 의원에게도 발송하자는 것이요?

◇ 진복춘 의원

- 응당 여론화된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만 해무청에 대한 말씀을 할 것이 아니라 6인 위원회가 목포 각 기관장을 망라해서 해무청을 유치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만큼 우리 의회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합석해서 회합하여 좋은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 정응균 의원

- 지금 6인 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는 이 6인 위원회는 이 해무청 유치 운동에 관한 위원회는 우리 의회에서 많이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완의원이 보고한 조직 기구 그대로 우리가 협조할 것인가? 그래서 처음 기구를 그대로 할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조직적인 것을 명백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지방 해무청 지방 해무청 유치에 관한 추진 위원회를 논의하고 그것을 후에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김창현 의원

- 회의록에 보면 6인 위원회에 전부 일임한 이상 그런 조직 그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역시 6인 위원회를 두자는데 네가 찬동 하였습니다.

◇ 정응균 의원

- 6인 위원회는 결정적인 것이라는 것이 안입니다.

그러나 6인 위원회의 본인의 의견을 모릅니다.

◇ 명남철 의원

- 지금 낭독한 보고서에 위원장이 시장, 의회 의장으로 되고 부의장이 해운기관장이 되었는데 해운 관계에 직접 관련된 해운조합 이사장을 넣었으면 하겠습니까.

◇ 이재홍 의원

- 지금 해운관계에 직접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 이사장이 그 멤버에 빠졌다고 하시는데 물론 해운관계 기관장을 넣었으면 하겠으나 그렇게 되면 너

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해사국장, 상송회의소장, 번영회장만 넣어 두고 그 분들은 부회장에 안넣더라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 김자홍 의원

- 어제 자유신문에 문제된 신문 요지의 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 해무청 지방청 설치 시기에 관하여 금명일간 적소에 결정될 것이라고 될 것이며, 부산, 인천은 거정적이고 그리고 군산이나 여수에 지방청을 설치한다고 되었습니다. 그러니 2일간 서울에 갔다오면 해사국장에게 그 결과 여부를 들었으면 하겠습니니다.

◇ 김창현 의원

- 앞서 6인 추진위원회를 그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이재홍 의원

- 6인의 추진위원회의 문제는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기관을 그대로 하고 오늘 회의가 끝나면 오후에라도 곧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의할 것을 전제로 회의를 추진 합시다.

◇ 손백수 의원

- 우리가 추진위원회의 문제는 이미 해무청 유치 운동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말씀 드리는 것은 본 의원도 거기 멤버에 재무부로 되었는데 선전부로 돌려 주기를 요망하며, 그리고 먼저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였는데

(장내 소란하여 말씀을 중지 하였음)

(또다시)

우리 해무청 유치 문제에 있어서 활동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얼마씩이라도 냅시다.

전반에 도서관 설치할 때 시청 직원이 1인당 1백환씩 거출 하였으니 우리도 먼저 해무청 유치 운동 자금으로 솔선수범하여 얼마씩을 거출할 것을 동의 합니다.

◇ 부의장

- 재무부에서 선전부로 돌려 달라는 것은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출 금액은 얼마 정도로 할 것인가?

손의원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 손백수 의원

- 이번 제33회 회의의 3일간 당비를 거출합니다.

◇ 김경현 의원

- 해무청 유치는 한자 단어에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그러기에 해무청 설치라고 수정합니다.

유치라는 것은 다른 곳으로 갈것을 이리 오도록 하는 것은 유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해무청 설치로 하여 주십시오.

해무청 유치를 설치로 고칠것을 긴급 동의합니다.

(재청하는 이 있음)

◇ 부의장

- 해무청 유치를 설치로 수정 하자는데 찬성하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10대 영으로 가결 되었습니다.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이복주 의원

- 해무청 설치에 대한 추진위원회 6인은 결정적이라는 것은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 손백수 의원

-6인 위원회의 협조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표결본 이 마당에 그 설치 운동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오전 회의는 끝나치고 오후 3시에 그 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여 해무청 관계를 토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이재홍 의원

- 먼저 의회를 대표해서 서울 갔던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무청의 중요성은 말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해무청을 설치하는데 좀 말하자면 지금 이 문제에 제일 관련 있는 분은 수산국장, 상공부장관, 해사위원장, 해운국장, 상공부차관, 항만과장 이 여섯분인데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수에 가까운 것이 수산국장과 상공부장관이 여수가 적당하고 보고 있고 신성모씨는 절대적으로 목포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국장, 해사위원장은 여수보다 목포가 낫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서울가서 상공부장관을 방문하였는데 상공부장관은 말하기를 유옥우의원이 그 점 선건운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포를 오면서 간곡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 견지에서는 지방의원이 촉탁을 받고 운동을 하여준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까 김자홍의원이 말씀하기를 부산, 인천은 확실적이고 그 다음 하나를 두는데 군산, 여수에 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거은 여수에 가까운 사람들의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에서 어느 국회의원 비서가 와서 말한바에 의하면 12일경에 종결될 것이라고 하는데 상공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채용을 보면 지금 보는 견지에서는 15일경에 결정될 것이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지금 그 편지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마는 신문이나 편지를 보면 여수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상당히 화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목포시 의원 6명으로 근군 출신 민의원에게 해무청 설치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전보를 급히 쳐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보로서 요청을 바라는데 만약 의사당에다 치면 여수 출신 의원들에게 자극이 되니까 목포를 비롯한 인접 출신 11개소 국회의원에게 보내는데 자유당 소속의원들은 유옥우에게, 하고 호국동지 소속 의원은 정중섭의

원에게 전보를 보내서 내일 모래 2일간 적극 협조하여 수습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전보를 칠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

(찬성하는 이 있음)

◇ 이복주 의원

- 지금 의원의 보고를 듣고 대단히 긴급 하다는 것을 제 자신도 느꼈습니다 마는 6인 위원회로 결정한 해무청 추진위원회가 있고 또다시 우리 의원에게 결정적으로 해무청 문제를 가지고 전보를 친다는 것이 모순이 재개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진위원회가 우리 의원 이상으로 사회 전문 기술적으로 운동하는 이

당에서 구태어 이 전보를 우리시 의회 결의로서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또한 이와같이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우리시 의회가 전보 친다는데 저희들은 심하기 때문에 찬동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한개의 건설적인 입장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수단과

방법으로서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이 듣는 바에는 해무청 설치를 시의회에서 반대한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날 의결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2, 3인의 입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의원으로서 저희들이 책임져야 한다.

그런 무능한 시의원은 소환이라는 이러한 말까지 들었는데 소환하여도 좋습니다.

누구든지 목포시민을 위하여 일 할 수 있는 사람만 나오면 됩니다.

이러한 모략중상을 하려고 그래도 넘어가느냐 하는 중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문제에 대하여서는 여러가지로 이야기 있는데도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의회에서 결정적인 전보를 치면 친다. 안치면 안친다던가 확실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3, 4일 밖에 남지 않은 시급한 일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시의회를 중지하고 추진위원회를 개최 한다던지 결정적으로 하고 중식으로 들어 갈것을 개의 합니다.

◇ 이재홍 의원

- 지금 시의회 결의로 전보를 치자는 것은 시의회에서 치고 추진위원회에서도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가 소집되었으니 오늘 저녁까지 토의를 하더라도 전보는 내일 쳐야 합니다.

◇ 김삼성 의원

- 전보를 내일 치고 내일 아침에 서울에 가기로 하고 상공회의소장, 번영회장, 해사국장 세분의 교섭 결과를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목포시 의회를 대표하여 이재홍의원이 서울 갔다온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외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 교섭갔다 오신 그 사람들의 보고를 듣기 위하여 긴급 동의합니다.

◇ 정응균 의원

- 지금 이재홍의원이 전보를 치고 이복주의원의 제의는 내일 출발하자는 개의회가 있고 김삼성의원의 긴급 동의가 있었는데 이러한 이야기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하나 하나를 표결하기 위하여는 나는 시급한 문제는 시급한데로 중요한 제는 중요한데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일은 목포시 의회결의로서 격려문, 감사문을 보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인 추진위원회도 속히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목포시 의회가 중지해 가지고 우리는 전 목포 기관장을 초청하여 목포시 의회와 협조할 것을 논의하고 목포시 자체로서 분비위원회를 조직하여 준비위원회가 오늘의 회의에 나와서 보고 하므로써 6인 위원회가 해체됩니다.

◇ 김창현 의원

- 아까 6인 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그 구성체를 그대로 두기를 정식 동의합니다.

◇ 진복춘 의원

- 서울 갔다오신 해사국장이 지금 방청석에 계시니 중앙의 공기를 해무청 설치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청취할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

※ 장내가 대 소란

◇ 부의장

- 사회자의 군한으로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긴급 동의에 찬성하는 분 거수하십시오.

11대 영으로 가설

그러면 3분지 1 이상으로 가결 되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시겠지만 해사국장이 나오셔서 해무청 설치에 대하여 지식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국장님의 말씀은 생략

※ 역시 상공회의소장님의 말씀과 번영회장님의 말씀은 생략함

◇ 부의장

- 세분께서 여러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에 말씀하실 분은 말씀 하십시오.

◇ 김창현 의원

- 이제 중앙에서 오신분들의 말씀을 들으니 중앙에 계신 분들의 목포시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 선배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역시 일을 하는 것은 선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회의는 대단히 중대한 안전이지만 앞으로 해무청 설치 문제에  
까 신중히 건설적인 진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바삐 중앙에 사람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무청 설치 위원회가 구성한 그 위원회를 오후에 장소를 변동한다  
던지 이 회의를 휴회하고 그 회의를 한다던지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하신 이 있음)

◇ 이복주 의원

- 회의가 몇 시간이 될지 모르나 오늘 저녁, 내일 모래 시의회 할 것을 의장에게 일임하고 임시 시의회를 할 것으르 동의합니다.

※ 장내 소란 하였음

◇ 김경현 의원

- 전반 회의에 시정감사에 대해서는 일단 통과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감사에 대한 질의를 또 계속하기로 할 수 있습니까?

◇ 김삼성 의원

- 당시를 좀 말하자면 사무감사 보고일인 12월 24일 이후의 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이 없습니다.  
교육청도 안했습니다.

◇ 부의장

- 긴급 동의집에 찬성하는 이 거수하여 주십시오.  
찬성 11, 반대 무  
그러므로 오늘 오전 회의는 끝내기로 임시 휴회합니다.

※ 의원 오후 2시 10분 퇴장

(중식 시간)

(오 후)

◇ 부의장

- 다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13명으로 성원 되어 다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이복주의원의 동의를 가결 되었는데 해무청 관계에 대하여 오후에 기관장이 오시면 연석회의를 할 것인가? 내릴 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오신 기관장들이 돌아가신 모양이니 해무청 관계 회의는 다시 내일 10시부터 시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도록 연락 하겠습니다.

그러면 석천호 진상 조사관계상 그전 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행정 책임자들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오늘 회의를 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질서적으로 건설적으로 진정한 질의와 토의를 합니다.

그러니 오전 같이 무질서한 회의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 김삼성 의원

- 부의장 말씀 대단히 부적당 합니다.

당시은 어디까지나 질서를 잘랐는가 모르겠음

그리고 감정서 등은 나는 전부 부인 합니다.

그리고 구입 당시에는 완전 하였는지 또는 부랑크가 용접된 것을 모르고 구입 하였는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배가 당초 매주와 매주끼리 사이에 여수항에 와서 인도 하기로 되었다는데 여수항까지 타고올 수 있는 배라면 목포까지도 와서 인수할 수는 가?그리고 배가 나무가 썩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품 목록에 닳이 두가락, 닳줄이 두장 있고 가바가 7매 있고 나침판이 하나 있고 식사 도구로서 밥그릇이 몇개 있는데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부에 작은 전구 예비가 1개, 부랑크가 한, 스파나 8개, 몽키 스파나 2개, 파이프랜트 대소 2개가 있다는데 이것이 다 사용될 수 있는 것인가 쓸 수 없는 것인가 알 수 없습니다.

◇ 이재홍 의원

- 석천호 관계에 있어서 여러 의원들이 말씀이 많으신데 지금 진의원 말씀은 시행정부에서 직원 2명과 우리하고 같은 면남철의원이 여수까지 가서

구입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원을 믿을 수 없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무슨 커다란 부제이나 있는 것 같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수방면에 출장할 것을 중지할 것을 개의회합니다.

◇ 김창현 의원

- 진의원의 말씀을 들으면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기술자에게도 책임은 있고 사무적으로 보아서 총무과장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재산인 만큼 어디까지나 재산으로서 주무과장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꼭 부정이 있느니 하는 것인데 형제 3차 대전을 부르짖다 싶이 하는 이때 UN군이 많은 좋은 기계를 가진 젯트기로 날으다가 떨어지는 일이 있는데 함루며 만든지 오래된 기계가 혹 고장날 수도 있고 혹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아까 이재홍의원의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정응균 의원

- 조사위원이 았던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되어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배가 고장으로 인해서 논의가 또 됩니다 마는 나는 그 당시 느낀 것이 이 배를 사러갈 때 명의원이 자기의 사사를 버리고 시민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가지고 온 후 조사를 통하여 여러가지로 부정할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남철의원을 의심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덜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끝까지 명백히 규명하여 그 당시에 구입하려 출장한 분들의 체면도 세워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좌우간 누구를 갔던지 간에 청정한 규명을 해 주기를 바라며, 조사반으로서는 조사반의 한 사람인 저는 제하고 전에 조사위원이었던 오세일의원, 김영환의원, 전복춘의원 세 사람을 조사위원으로 배려할 것을 정식 개의회합니다.

◇ 이복주 의원

- 석천호 문제를 가지고 요전회의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지고 조

사를 하였으므로 중간 조사를 하였는데 또 무슨 조사위원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더러 정확히 조사를 하는 마당에서도 충분하지 않으면 그 조사위원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사위원회는 백번이라도 구성하여 보았자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배가 거기에서 여기까지 타고와서 고장 났으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거기서 구입할 때 잘못 보아서 그것이 부서졌다면 그것이 주무관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계라는 것은 오늘 썩썩한 것이 내일 부서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만일 이 문제를 조사하려면 시재정이 없으니가 여러분들의 재정을 세우십시오.

도의입니다.

가부를 물어 주시요.

◇ 손백수 의원

-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조사위원의 한 사람이었던 진복춘의원을 보탬 것을 동의합니다.

◇ 김삼성 의원

- 전반 회의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말씀한바 같이 우리는 어디까지나 시발전을 위하여 시재정을 절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전중에 3명의 조사위원으로부터 중간 보고를 들었으니 앞으로는 그 사정에 통한 사람으로서 3명을 파견할 것을 동의에 대하여 참가합니다.

◇ 손백수 의원

- 그러면 진복춘의원하고 또 한 사람해서 2명이 조사할 것을 수정합니다.

◇ 진복춘 의원

- 이 배가 이와같이 운행이 불가능하니 결국은 그 배를 사는데 주무관이

이를 잘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를 남해에서 여수에 타고 와서 120만환을 주었다고 하는데 왜 목포까지는 타고 올수 없었는가?

물론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문서상에는 120만환을 되었는데 실지로는 100만환을 주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며, 가령 우리가 20만환을 찾는다 한들 출장비로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할 것을 다 조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배를 구입할 때 여수 해사국 직원하고 시건설과장하고 전화를 하는데 왜 시에서 전화를 하지않고 조양운수주식회사에서 하였는가? 의문입니다.

#### ◇ 명남철 의원

- 여수하고 전화 관계는 그 때 일요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담배까지 사주어 가면서 여수 전화를 속히 좀 불러다오 하였으나 이것이 광주에서 중계하게 되어 시간이 오래 되어서 그냥 나왔는데 우체국에서 시청 숙직실을 부르다 나오지 않아서 조양운수주식회사를 불러 거기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전문으로 시장에게 연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전화 받은 박씨에게 물어 보아도 알 것입니다.

#### ◇ 부의장

-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토의하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 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사 중지하여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세분이나 경상도 남해까지 출장가서 조사를 한다면 없는 재정에 여비가 적어도 몇 만환은 들어야 할 것인데 이 문제는 이재홍 의원의 개의에 찬성합니다.

#### ◇ 이복주 의원

- 그 배가 고장이 나 있어도 고쳐서 쓸 수 있는가? 아주 쓸 수 없는가? 건설과장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가 쓸 수 없다면 행정부 당국에 책임을 추궁할 것인데 그것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부의장

- 제가 3인 조사위원회의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전에 이 배의 구입에 대한 책임은 총무과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랑크가 부러진 것을 구입하였다는 것은 건설과장의 책임입니다.

그러니 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세분이 경상도까지 간다면 여비를 상당히 써야 할 것인데 거기를 가서 이 비용을 충당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토론하고 이재홍의원의 발언과 같이 이 배를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삼성 의원

- 원래 기계가 고장나서 안나는 것은 우리가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기계를 구입 당시에 좋은 것을 사려고 누구든지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잘못이라는 것이 있어서 부랑크가 부러진 것은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 부의장

- 재 개의집 세분으로 경상도까지 조사를 보내자는데 찬성한 의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찬성 7명으로 가결

◇ 명남철 의원

- 경상도 남해까지 조사위원의 여비는 내 사재라도 내겠으니 철저한 조사로서 확실한 규명을 하여 주십시오.

◇ 부의장

- 조사위원회를 보내지 말고 거기까지 갈 여비로서 배를 고쳐서 앞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지 거기까지 간다면 만일 매주가 출타하고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며칠을 거기서 머물것어요.

이것참 곤란합니다.

◇ 김영완 의원

-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반 회의에서도 논의 하였는데 근본 원인이 건설과장의 인책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즉 한쪽 발언을 취소 하던지 한쪽 발언데로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3, 4명이 여비를 내는 것보다 목포에서 구칠 수 있다니까 口고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부의장

- 석천호가 여기에 있으니 조사위원의 세분이 대조해서 왜 이것을 잘 모르고 샀느냐 또는 속아서 샀느냐 하는 주무 과장의 책임 추궁도 할 수도 있는데 남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 김삼성 의원

- 조사면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정사건이 있다면 이것을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원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는 조사위원을 보내어 우리는 어디까지나 근본 문제부터 해결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가 100만원 주었다고 해도 다 못주는 수도 있기에 오늘의 회의에서 논의된 것입니다.

◇ 김영완 의원

- 이재홍의원의 말씀 대단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건설과장의 인책 문제입니다 마는 우리가 문제를 쉽사리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한 사람이 발언을 취하하면 됩니다.

여하튼 저는 본 회의의 결의대로 하겠습니다.

◇ 김창현 의원

- 김의원 말씀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결국 몇 의원이 발언을 취하하면 문제는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응균 의원

- 조사위원의 한 사람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나는 오늘 보고가 중간 보고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현장 조사를 하지 못 하였습니다.

어제 현장 조사를 하여 왔으나 우천 관계로 못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조사에 시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가 중간 보고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규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끝까지 규명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 명남철 의원

- 비품 목록에 있는 비품 조사는 그 당시에 선장과 선원들에 의해서 조사 된 것이며, 계약서에 비품 관계가 여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의장

- 석천호를 구입시에 무슨 부정이 있었다고 확인할 때 조사가 필요한 것이지만 무단시 조사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도까지 조사를 보낸다는 것은 시청의 없는 재정에서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사위원을 세분이 부족하면 다섯분으로 하더라도 현지에서 배 조사를 하고 거기서 부정이 생길 때 결과에 의해서 조사하자는 것입니다.

◇ 이복주 의원

- 아까 가결하였으나 번안 동의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조사위원의 2, 3명이 조사위원이 하는 것보다 21명 의원 전부가 조사 위원이 되어서 조사하여 가지고 다음 회의에 개별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것을 번안 동의합니다.

(재청)

◇ 부의장

- 가부를 묻겠습니다.

번안 동의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가결 10표, 부결 무로 번안 동의가 가결됨

◇ 이복주 의원

- 아까 보고 사항에 이어서 맥강문제가 보고 되었는데 그 내용에서 축산  
동업조합의 책임에서 조합 자체가 4명의 의원이 20가마씩을 배급 타갔는데  
그것이 여러가지 부정 사건이 있는 것으로 되어 신문 지상에 보도 되었는데  
조사위원회에서 확실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 김삼성 의원

- 조사위원회에 위촉을 받고 조사에 부정이 있다면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백수 의원

- 제33회 첫날 회의에서 오후에 제가 도서관 문제를 말씀 하였는데 그 당  
시에 발언 내용인즉 시영도서관 서적 내용을 본다면 일제의 잔재성을 띠고  
있는 서적이 태반인데 행정부에서 재정이 있으면 해방 이후 서적을 40만환  
이면 ○리체 구입할수 있었는데 시재정이 한번에는 구입할 수 없으니 시청  
직원이 성의를 표시하여 1인당 100만환씩을 거출하여 서적을 구입 하였으  
니 우리 의원들도 300환씩 거출하여 서적을 구입 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  
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긴급 동의로 산회 하였던 것입니다.

◇ 이복주 의원

-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관 당시에는 누구든지 마음놓고 독서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 앞에 제대장병 보도연맹회가 있어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제대장병 보도연맹이 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시내 중고등학교의 연말 위문카드를 발부 하였는데 우리들은 학교 생  
도수대로 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의 내용을 본다면 전면에 사진이 그려 있는데 여자가 땀을  
드리고 있는 그림이 그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입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라고 써 있는데 그래 이것을 바라보는 장  
병들이 참으로 입을 그리워 하며, 여학생에게는 편지라도 올 우려가 있어서  
인쇄를 다시하라고 하였으나 시일이 없다고 해서 그래도 중 고등학교 배부  
하였는데 그 가격은 1매에 20환 내지 30환씩으로 받아서 그 돈이 상당히 많  
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내용이 어찌 되었는지 사장님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 시장

- 저는 명예 회장으로서는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도서관의 분위기를  
조종하기 위해서 당연히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문 엽서에 대해서는 아직 저에게 하등의 연락이 없으나 학교에서  
돈이 많이 나와서 집을 능히 얻을 수 있다면 조속히 조사하도록 하였습니  
다.

※ 오후 5시 의원 퇴장

◇ 김자홍 의원

- 교육청에서 아직 안오고 하여서 질의할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의는 휴회하고 내일 다시 속회합시다.

◇ 김경현 의원

- 시영 도서관 설치에 대하여 저는 단 3전도 내라고 하면 못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라면 3천환씩으로 합시다.

◇ 정응균 의원

- 도서관 문제에 300환씩 내자는 것은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마는 내  
생각에는 돈 300환 보다도 우리들이 보던 책이 있으니까 우리 돈으로 하지  
말고 서적을 자기 성심껏 도서관에 기증할 것을 개의합니다.

(전원 찬성 하였음)

◇ 김자홍 의원

- 오늘 회의는 이로서 끝나고 모래 속회합시다.

◇ 부의장

- 김의원의 발언에 찬성하신 분은 거수하십시오.  
찬성 7표로 가결 됨

이로서 금일의 회의는 끝나고 모래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5시 10분 산회)

◇ 폐회선언 : 부의장(오후 5시 10분)

◇ 폐 회 식 : 식순 생략

◇ 부의장 : 회의록 서명의원 의원을 지명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이 서명 날인함  
1955(4288)년 3월 10일

부의장 : 김 소 규

의원 : 김 자 홍

의원 : 명 남 철

작성자 서기 : 홍 남 식

## 제34회 임시회 목포시의회본회의회의록(제 2 차)

1. 일 자 : 1955(4288)년 3월 11일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의성립 :

1. 참석의원 : 12명

2. 불참의원 : 8명

4. 개의선언 : 의장(오전 11시 7분)

5. 보고사항 :

1. 제34회 제1차 회의록 낭독

2. 제5회 시정감사 전말보고 (시장)

3. 지방 해무청 설치 추진위원회 회의상황 보고 (산업과장)

6. 회의사항 :

◇ 의장

- 전반 회의록을 낭독하겠음

◇ 서기

- 회의록 낭독

(약 30분간)

◇ 이재홍 의원

-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그만 낭독하고 회의 진행할 것을 동의 전원 찬성

◇ 의장

- 회의록에 왜어 요세쓰리고 되어 있는데 용접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

◇ 의장

- 시정감사 보고를 듣기로 함

◇ 김영완 의원

- 작년 본 회의에서 가결된 시가옥에 대한 매매 운운이 있었는데 대지료는 징수 못하고 있는 현상이므로 이러한 재산을 활용하여 공설운동장을 만들자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차남진씨도 대지를 회사 한다하니 기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부, 시의회, 교육청, 각 학교, 번영회 등 망라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긴급 동의

(속기록 참조)

◇ 이소규 의원

- 정병조씨의 대지 문제 및 차남진씨의 대지 제공하겠다는 문제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 여하?

◇ 시장

- 공설운동장 대지의 대해서는 차남진씨로부터 만평의 대지를 회사 하겠다고 정병조씨와의 소송은 근간 판결이 내려올 것이다.

◇ 의장

- 추진위원회 구성 긴급 동의에 표결하겠음  
전원 찬동 가결  
추진위원 :

◇ 이소규 의원

- 공설운동장 설치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재산이 나와야 겠으니 이 처분에 있어서의가능 여부 등을 조사하여 의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건설과의 기술면 담당직원 1명, 관리계 직원 1명을 행정부에서 추진위원회에 참가 시

킬 것을 동시에 첨가

◇ 의장

- 제5회시정감사 결과 보고가 있었음

◇ 시장

- 축조로 설명이 있었음  
(속기록 참조)

◇ 손백수 의원

- 교육세 미수금이 예산면에 포함 되었는데 그 수입면과 교육세 징수 결과 또 문맹퇴치 사업으로서 태만한 점, 연료 절약에 답변을 바랍

◇ 교육감

- 답변이 있었음  
(속기록 참조)

◇ 김자홍 의원

- 북교동 계단공사, 소방대사, 찢차, 수도문제 해결책, 현 경찰서에서 착수하고 있는 도로를 점토로 포장하고 있는 것,  
교육청에서 각종 명목으로 부당 징수하고 있는 뜻에 답변을 바랍

※ 행정부로부터 답변이 있었음

(속기록 참조)

◇ 손백수 의원

- 후생주택 이용 문제와 호적부 기류류의 조속 수리에 대하여 발언이 있었음  
(속기록 참조)

◇ 정응균 의원

- 시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천적으로 시일을 두고 놓치지

말도록 하라는 요청이 있었음

(속기록 참조)

◇ 김창현 의원

- 급수 누수에 대한 조치와 예산의 정규적 운영 및 치도에 대하여 적극성 있는 행정 지도를 하여 주려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음

(속기록 참조)

◇ 김삼성 의원

- 과세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음성 소득 파악에 노력할 것이며, 성니교육에 있어서 수료증을(2학년 정도) 수여하는데 불공평 하다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여하?

◇ 시장

- 답변이 있었음

(속기록 참조)

◇ 이복주 의원

- 도로 수리와 미창서부터 상업학교까지의 국도 및 재판소부터 서부교까지의 도로 수리에 대하여 답변을 요함

◇ 재무과장 및 호병과장, 교육감의 답변이 있었음

(속기록 참조)

◇ 이재홍 의원

- 찢차에 대한 내용 설명이 있었음

(속기록 참조)

◇ 건설과장

- 누수에 대한 철저 단속과 급수에 대한 설명이 답변이 있었음

(속기록 참조)

◇ 김삼성 의원

- 수도 철관의 고장으로 누수가 심하는데 급수 부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람

◇ 건설과장

-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음  
(속기록 참조)

◇ 손백수 의원

- 휴회할 것을 동의

◇ 의장

- 표결하겠음  
전원 찬동 가결

◇ 휴회선언 : 의장(오후 2시 30분)

◇ 속회선언 : 의장(오후 3시 10분)

◇ 손백수 의원

- 의회에서 가결 안건에 대해서 실천한 건수를 사무국에서 조사하여 다음 회의에 제출하여 줄 것을 동의  
(재청)

◇ 김재홍 의원

- 판자공장, 세과유치, 삼학도 문제가 미결중인데 삼학도 공사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바람

◇ 시장

- 삼학도 공사에 대하여 설명의 답변이 있었음  
(속기록 참조)

◇ 손백수 의원

- 토론 중지하고 해무청 추진위원회 보고를 듣기로 할 것을 동의  
(재청)

◇ 오세일 의원

- 세금으로 인한 업자의 고민을 호소하였으며, 광주와 목포의 국세, 개인 영업세 배시액 차이가 부당하니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상도하여 교섭하기로 동의  
(속기록 참조)

◇ 김삼성 의원

- 의원의 발언에 찬동하여 동의에 참가

◇ 의장

- 추진위원회 보다 교섭위원회로 할 것을 동의에 참가  
표결하겠음  
가 10 가결  
교섭위원으로는 각 의원

◇ 의장

- 해무청 설치 운동에 있어서 자금조달 관계를 어떻게 하기로 되었는가?  
설명 있기를 바람

◇ 이복주 의원

- 보고에 있어서 자금 관계와 상경하신 분만 보고하여 줄 것을 개의

◇ 오세일 의원

- 이르면 편입 문제에 있어서 교섭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으로는 의장, 부의장, 김삼성, 정응균, 김창현, 이재홍 의원으로 할 것을 동의

◇ 명남철 의원

- 이 건은 거반 회의시 내무분과위원 4명에게 정식 일임키로 된 것이다.

◇ 손백수 의원

- 위원으로 21명 의원 전부가 될 것을 개의

◇ 김삼성 의원

- 이로면과 삼향면 사이에 거주한 분으로서 위원 조직할 것을 재 개의

◇ 이복주 의원

- 이로면 출신 구역 즉 제1선거구에서 나온 의원을 중심으로 할 것을 첨가

◇ 의장

- 표결하겠음  
먼저 이복주의원의 재 개의부터 표결하겠음  
가 5로 부결  
동의집 표결하겠음  
가 6, 부결

◇ 김삼성 의원

- 동행정은 자치 행정으로 동정세를 동에서 부과하기로 자치법에 되어 있고 마산, 부산서는 자치행정을 하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음  
(속기록 참조)

◇ 의장

- 마산, 부산서는 자치 행정을 하고 있는데 목포서는 실천을 보지 못하고 있다.  
동행정의 소생을 기하려면 동정세를 동에서 부과하여 동행정을 자치 행정으로 할 것을 긴급 동의

◇ 이소규 의원

- 행정 책임자로서 자치별로 맡길 수 있는가?  
또는 그러한 용기가 있는가?

시장의 답변을 요청함

◇ 의장

- 민선 시장으로서 도지사의산하에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는 관계 상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도지사가 갱신 되었으니 진정하여 보자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음  
(속기록 참조)

◇ 이소규 의원

- 민선 시장으로서는 곤란한 일이다.

자치 행정을 하겠다는 것을 지사 및 내무부장관에게 진정하기 위하여 김삼성, 김영완의원을 파견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할 것을 개의

◇ 이복주 의원

- 도지사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 안할 것이다.

시장으로서는 지방 실정을 참작하여 할 수 있는 문제이며, 각 동의 목 불인견한 실정에 발언이 있었음  
(속기록 참조)

◇ 의장

- 그러면 해무청 추진위위뇌 보고가 있겠음

◇ 산업과장

- 회의 결과 설명

(속기록 참조)

◇ 이소규 의원

- 흥업은행의 협조에 대하여서는 경의를 표하나 시금고를 주재시켜둔 조 흥은행에서 자금 용자를 거절하였다 하니 이것은 일조 유사시에 다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시금고를 타은행으로 변경시킬 것을 긴급 동의

◇ 의장

- 그것은 산업과장의 보고가 틀린 것이다.  
(속기록 참조)

◇ 서기

- 조흥은행에서 거절 당한것이 아니다.

◇ 김삼성 의원

- 10일 내에 30만환을 반환해야 되니 시금고 즉 조흥은행부터 50만환 차용하여 30만환은 반환하고 잔금은 또 필요한 것이니 비용 보충키로 하자

◇ 이재홍 의원

- 해무청 관계는 추진위원회에 일임키로 된 것이니 의장이 못가게 되면 여기서 지명하기를 바란다.

◇ 의장

- 건설과 누수방지에 착수하여야 되겠는데 다음 회의에 추가개정 예산을 제출하기로 하고 우선 100, 000환으로 공사 착수코져 한다 하여 사전 승인 하여 달라는 것이니 여러분의 의견 여하?

전원 찬성 가결

◇ 이복주 의원

- 산회할 것을 정식 동의  
전원 찬동

◇ 산회선언 : 의장(오후 4시 30분)

◇ 폐 회 식 : 식순 생략

◇ 의장

- 회의록 서명 의원 김팔용 의원을 지명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이 서명 날인함

1 9 5 5 (4288) 년 3 월 7 일

과장 : 박 찬 규

의원 : 김 자 흥

의원 : 김 팔 용

작성자 서기: 홍 남 식